

# 광주·전남 폐업자 37% “사업부진 문 닫아”

국세청, 2018년 기준 5만4000명 폐업...전국의 6% 차이

코로나 어려움 겪는 중기·소상공인 위해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광주·전남지역에서 폐업을 한 사업자 3명 중 1명은 '사업부진'으로 업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지역 폐업자는 광주 2만5092명·전남 2만8982명 등 5만4074명으로 나타났다. 지역 폐업자 수는 전국 90만551명의 6% 가량 비중을 차지했다.

과세유형별로 나누면 광주지역에는 일반사업자 폐업자가 1만33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이사업자 7601명 ▲면세사업자 2357명 ▲법인사업자 1779명 순으로 업체 문을 닫았다. 전남지역은 ▲일반사업자 1만4638명 ▲간이사업자 8569명 ▲면세사업자 3950명 ▲법인사업자 1825명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사업자들이 폐업을 한 이유는 '사업부진' (2만32명·37%)이 가장 많았다.

양도·양수를 이유로 꼽은 응답률은 4% (2183명)였고 ▲법인전환 269명 (0.5%) ▲행정처분 170명 (0.3%) ▲해산·합병 132명 (0.2%) ▲계절사업 65명 (0.1%) ▲면세포기·적용 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를 꼽은 응답률은 57.7% (3만1208명)에 달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 것으로 내다보면서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음부즈만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폐업 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를 개설했다.

우선 폐업 신고 때 분실이나 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34개 업종은 폐업 신고 때 반드시 허가증·등록증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분실사유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음부즈만은 개정이 필요한 폐업 신고 관련 법령 14개를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

각 부처는 연말까지 폐업 신고 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 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 신고 제도도 올해 안에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폐업 신고 제도가 마련되면 41개 업종의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를 할 때 세무서와 시

군·구청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큰 창업 4~7년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음부즈만은 전략·폐기물 등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도록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주봉 음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0.2% 증가하며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 됐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 특 특 창업이야기



### 비대면(언택트) 시대의 창업전략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여전히 잔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코로나19의 여파는 사람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런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창업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사람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영역의 확대가 아닐까 싶다. 이는 향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전략 수립 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방식의 선택 부문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져가는 얘기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5G, 무인자동차, 드론 등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들이 일상화 되고 세상의 중심이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던 상황에서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비대면 세상은 이미 커져가고 있었다. 다만 비대면 세상으로의 변화속도를 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체감하기 힘들었는데 코로나19가 창궐해 우리를 비대면 세상으로 더욱 빠르게 진입시켜 버렸다고 할까?

다만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비대면 시장의 팽창이고 결국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원위치 될 것인지 전염병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에 이르면, 올 가을 코로나19 재창궐과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우리 일상에 공존할 것이라는 공존설이 현실로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거나 공존하게 된다면 창업시장에 진출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전략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점포창업 시 직원 중심의 위생과 청결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고객 중심의 위생 부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더욱 강화해 흡배기 시설의 대대적인 보강과 공기청정기를 통한 공기정화 그리고 식기와 집기, 테이블, 문손잡이 등에 대한 소독의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테리에도 그동안은 공간분할의 개념이었다면 향후에는 공간차단 기능이 확대되면서 중대형 외식업소들의 경우 톱 스타일의 시설들에 대한 고객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물론 현재 노래방 등의 환기시스템이 약해서 오히려 전염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흡배기 시설의 강한 보강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생각이다.

테이블 간격도 소형 외식업소들은 공간 활용성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지만 중대형 음식점들의 경우 현재 보다 간격을 벌리는 것과 테이블 배치 방향에서 옆 테이블과의 접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트렌드화 될 가능성이 높고 음식매뉴들도 당연히 개별 반찬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테이크아웃과 배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회용기의 상시 비치하는 대개의 외식업소 창업 때 절대적인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제방식도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금 지불제형 유인 결제방식에서 선불제형 무인 키오스크 결제방식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상의 모든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람들의 의식변화인데 기술이 주도하는 비대면에 대한 의식변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람들의 의식을 완벽하게 바꿔 놓았다. 그 회복력이 어느 정도 속도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 광주역 도시재생센터 예비창업자 30명 모집

6월3일~8월5일 교육 진행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오는 27일까지 예비 창업자와 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광주역 도시재생 액셀러레이션' 참가자 3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3일~8월5일 10차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6개월 기간 멘토링 프로그램도 거치며 사업역량을 높여게 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공모사업, 광주역 도시재생 거점시설 입주자를 선정할 때 우선된다.

교육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순환구조를 세울 수 있는 '도시재생 실천형 교육모델'을 제시한다.

강의는 ▲도시재생과 로컬크리에이터 ▲공간(유희부동산) 데이터 구축 ▲유희부동산을 활용한 전략적 도시경영 ▲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 방안, 자금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도시재생 스타트업' 견학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gjghc)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광주역 도시재생 액셀러레이션은 광주 최초 경제기반형 사업 특성상 도시재생과 인력양성을 융합한 과정으로 기획됐다"며 "지역 내 수익 순환 구조로 구축해 광주역 도시재생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5G 시대 열리자 광주·전남 광통신 '光'나네



최기영(왼쪽) 장관이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연제동 오이솔루션을 방문해 5G 통신부품 제조현장을 둘러보며 '광트랜시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광주·전남 7개사 지난해 매출 4000억원 돌파

광주·전남 5G 광통신 업체 매출이 지난해 4000억원을 돌파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는 코로나19 이후에 대응할 '한국판 뉴딜' (경제 부흥 정책) 핵심 기술로 꼽힌다.

1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5G 관련 광통신 부품 업체 7개사가 지난해 올린 매출은 4116억3800만원으로, 전년 매출 1949억8500만원보다 111.1% 급증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고속 광트랜시버를 주로 생산하는 ㈜오이솔루션과 ㈜우리로(광수

신기), ㈜원디스(광원소재), 엔피닉스㈜(렌즈), ㈜코셋(광서브모듈) 순천 한국신광파이크로에렉트론스㈜(패키지), 장성 ㈜고려트론(광커넥터) 등 7개 업체가 있다.

광주 첨단산단에 있는 오이솔루션은 5G 부품 관련 대표적인 5G 중소기업으로 꼽힌다. 5G 무선기지국과 유선망 사이에서 광-전기 신호를 상호 변환해 송수신하는 고속 광트랜시버를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다. 광트랜시버는 4G보다 20배 빠른 5G의 성능을 뒷받침하는 필수 장비다.

오이솔루션 매출은 지난 2018년 814억

6100만원에서 이듬해 2120억4200만원으로, 1년새 158.1% 뛰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이솔루션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활발하게 운영 중인 생산라인을 참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했던 이유는 5G 전후방 산업 선점을 통해 오이솔루션과 같은 중소기업을 동반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며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되고 있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5G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